

영적 부활 휴거 부활

본 문 요한복음 5장 24-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1. <부활>이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육적으로 풀면 안 된다.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다. <영적 부활>이다.
2. 베드로전서 3장에도 ‘영적 부활’을 말씀하며 “주께서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을 전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19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3.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곧,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에서 ‘죽은 자’는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가 아니다. <사망권에 거한 자>가 ‘죽은 자’다. 곧, <육>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을 말씀한 것이다.
4.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 사상’이 깨지면서 ‘죽어있던 생각’이 살아나게 된다. <생각>이 살아나니, ‘죽어있던 행실’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생각>과 <행실>이 살아나서 변화되니, 그 혼과 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것이 곧 <영적 부활>이다.
5. 성경을 보면,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소리가 나면 주께서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주에서 주를 영접한다.” 하니, 구시대 기성인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풀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휴거된다.” 한다. <공중>이란, ‘하늘 공중’이 아니라 ‘지구 공중’이다. 육신이 살아 가는 이 땅에서 주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 영도 천국에 가는 것이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행하며 구원 역사를 이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6.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신 말씀도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다. <사망권에 있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한 자>가 곧 ‘영적으로 죽은 자’다.
7. <육적인 자>는 ‘육’을 주장하고, <영적인 자>는 ‘영’을 주장한다.
8. <사망권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면 ‘생명권’으로 나온다. 이것이 ‘부활’이다.
9. <부활>은 한 번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끼 진수성찬을 먹었다고 해서 일평생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성장하는 부활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 생각, 혼과 영도 그러하다.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날마다 더 좋은 부활, 더 차원 높은 부활을 이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족하다.” 할 때까지 날마다 ‘더 좋은 부활’을 이뤄야 된다. 그러다 ‘때’가 되면 성경에 예언된 ‘휴거 부활’을 이루게 된다.
10. <휴거>는 ‘부활의 할아버지, 할머니’다. 곧, “부활의 부활을 거듭하다보면 ‘휴거’ 된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행실>이 결국은 ‘휴거’를 낳는다.” 함이다.
11. <휴거>는 육신은 땅에서 성삼위와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

고, 그와 같이 영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성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 이 목적을 위해 부활을 이루고, 휴거를 이루게 된다.

12. <부활>에는 ‘시대적인 부활’ 이 있다. <구약 종급 역사>에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약 자녀급’ 으로 부활되는 ‘시대적 부활 역사’ 였다. 이와 같이 <신약 자녀급 역사>에서 때가 되어 ‘시대 보낸 자’ 가 왔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신부급 부활 역사’ 가 일어난다.
13. <자녀급 말씀>을 들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 를 받고, <신부급 말씀>을 들으면 ‘신부가 되는 권세’ 를 받는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 이니, ‘신부급 말씀’ 을 듣는 자는 ‘신부가 되는 권세’ 를 받는다.
14.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신부급 부활역사’ 를 이루시기 위해 사랑의 조건을 세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통해 성경의 인봉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펴 나가고 계신다. 고로 그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신부’ 로 변화되고, 그와 같이 혼도 영도 ‘신부의 영’ 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부활이다.
15. <섭리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부’ 로서 변화를 이루고, 성경에 예언 된 그날, 시대 보낸 자가 태어난 지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을 ‘휴거’ 로 이

웠다.

16. <육신>은 땅에서 마치 결혼해서 신랑과 같이 살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하며 사는 ‘육적 휴거 역사’를 이뤘고, 그 <영>은 천국 황금성으로 휴거 되어 천 년 혼인잔치 역사를 진행 중이다. 이것이 ‘영적 휴거 역사’다.
17. <섭리사>는 이미 ‘영적 부활’을 이뤘고, ‘휴거 부활’을 이뤘다. <영적 부활, 휴거 부활>을 이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이후에는 결혼 생활을 해야 하듯이 주와 함께 이 시대를 뛰고 달리며 시대와 주를 증거해야 된다.
18.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휴거>다.
19. <생활의 부활>이다. 날마다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휴거>를 위해 몸부림치며 행하여라.
20. <새 시대> 앞에 ‘구시대’는 죽어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셨으면, 그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지 않고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직도 하늘 구름을 쳐다보며 통곡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다.
21. <새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새 역사’를 펴간다.
22. <구시대>와 <새 시대>는 마치 ‘월명동을 개발 하기 전의 초가

집’ 과 ‘월명동 개발 후 자연성전’ 과 같이 차이가 있다.

23. <새 시대>에 왔으면, 시대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뛰고 달려라.
그리함으로 시대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가
되어라.

24. 자꾸 ‘생활의 부활’ 을 이뤄야 된다. 그리함으로 ‘더 이상적인
부활, 차원 높은 휴거’ 를 이루는 자들이 되어라.